



2면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유입 · 정착 도모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음 7월 14일) 제30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민 생명 지키는 보호자가 돼 달라”

김관영 도지사, 정책조정회의 열고

“집중호우 예상따라 대응태세 구축” 주문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공무원들이 ‘가디언(보호자) 역할을 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의 폭우 피해를 보여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부터 우리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지사는 “어제 도지사로서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등지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도내 14개 시·군에 특별지시를 했다”며 “일선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선제적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이 기민하게 움직여, 도민들에게 신뢰의 언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급선무인 집중호우에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업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예방과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라”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폭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계획을 꼼꼼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는 전북경제 부흥의 모멘텀을 만들고 도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새만금개발을 비롯해 투자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속도를 높이자”고 역설했다.

또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2일 익산에서 진행될 정부 현장 실시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선정 때처럼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 전북은 성공의 역사를 축적해 나가야 하고, 도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해줘야 한다”는 말로 또 한번의 모멘텀 창출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김경수 기자

한은 전북본부, 도내 중기지원 100억 추석 특별자금 운용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100억원 이내의 추석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금융기관 영업점이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북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운전자금 대출로, 업체당 10억원 이내면 해당한다.

다만 한은 전북본부 중소기업 지원 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부동산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 영위 업체, 고신용등급 해당 업체, 지원 일몰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전북본부는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일부(최대 50%)를 연 1.0%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공급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대출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금 운용으로 추석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거석 교육감, 직업계고 살리기 ‘강행군’

전주상업정보고 찾아 애로 청취

전주여자상업고 명칭 변경 등 학생들을 위한 방안 모색

서거석 교육감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직업계고를 살리기 위해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군산상고, 지난 9일 이리공고를 각각 방문해 특성화고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10일에는 전주상업정보고 등학교 관계자들을 도교육청으로 초청해 학교 명칭 변경 등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는 문병원 교장을 비롯해 최영일 학교운영회 위원장, 배정에 전주여성상 총동창회 6대 회장 등 학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주상업정보고’로 명칭을 변경할지, ‘전주여자상업고’로 바꾸는지, ‘전주상업정보고’로 정체를 명확히 하는지, ‘전주상업정보고’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든 명칭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전주상업고는 전주영상미디어고, 전주상업정보고로 두 차례 교명변경과 남녀공학 전환으로 정체성 및 취업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총동창회는 물론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 교명 변경에 찬성하고 있고, 특히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여학생 중심의 상업계열 특성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0일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를 찾아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로의 운영 필요성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상업계고와 인문계고의 균형있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도교육청 공무원 채용시 직업계고 학생 일정을 확보 등도 건의했다.

문병원 교장은 “현재 교명은 중학교와 지역사회의 학교를 홍보하는데 혼

돈을 주고 있어 신입생 유치 및 취업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주여성’이라는 브랜드 가치 회복을 통해 신입생 확보와 취업 명문 학교의 맥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전주여성’이라는 교명을 되찾고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 같다”며 “교육주체들이 원하고, 학교를 살리는 일이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사립학교의 차별없는 지원은 물론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사이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면서 “모든 학생이 균형잡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성 기자

전통 가락·대중음악 접목 ‘조선팝’ 무더위를 ‘썩~’

‘조선팝 페스티벌’ 12~13일·19~20일 전주한옥마을서
전년도 인기팀 축하공연·뮤지션 22팀 참가 공연 선봬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시민과 여행객의 무더위를 식혀줄 조선팝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이달 12일과 13일, 19일과 20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 광장에서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2022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관련기사 16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은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춰 관광객과 시민들이 조선팝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8월(여름주간)과 10월(가을

주간)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전년도 인기팀인 ‘죽약인가요’와 ‘타이타인’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최근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조선팝 뮤지션 22팀의 노래와 연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 열리는 여름주간 페스티벌에서는 △죽약인가요 △퓨전국악 비단 △음유사인(U sign) 이상 12일) △신들림 △메이커스(Makers) △악필(이상 13일) △구각노리 △프리지본

(FreezyBone) △부귀쌔론(Boogie Saloon) 이상 19일) △아트쿠도(ARTKUDO) △조윤성 조선POP트리오 △소리꾼 △경성구락부(이상 20일) 등 하루에 3팀씩 무대 위에 오른다.

이어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을주간 페스티벌에서는 지난해 인기 팀인 ‘타이타인’의 축하공연과 함께 △연희별곡 △Bidos △시도 △월드뮤직 그룹 ‘토케토리ToqueTor’ △이희정 밴드 △비타 △시점 △민요밴드 BOB △만월프로젝트 △TIMY △파

르베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 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관람의 즐거움을 2배로 전하기 위해 현장방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정상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조선팝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등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소리의 고장 전주를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장르인 조선팝의 보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6월과 7월 풍패지관(전주객사)과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등에서 ‘조선팝 상설공연’을 개최할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